

“숲에서 현장의 문제 정책으로 연결하다”

황칠 재배현장 찾아 제도개선 논의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지난 1월 21일(수), 전남 해남군 황칠나무 재배 현장에서 제5차 ‘숲으로, 다가감(多加感)’을 개최했다.

‘숲으로, 다가감(多加感)’은 더 많이(多) 듣고, 진심을 더해(加), 감동과 공감(感)을 전한다는 뜻으로,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관장의 수요자 맞춤형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진흥원 관계자를 비롯해 (사)해남군황칠협회,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전남 지역 황칠나무의 생산 여건을 살펴보고 산업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남 지역은 국내 황칠나무의 최대 주산지로, 특히 해남군은 지리적표시제(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로 등록된 대표적인 황칠 주산지로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해남군황칠협회 관계자는 “황칠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요처가 부족하여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며, 생산-소비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원료로서의 인정 범위 확대, ▲공동집하·공동판매 기반의 생산자 조직화, ▲고품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재배·수확 표준화 매뉴얼



▲한국임업진흥원 제공

구축, ▲황칠의 효능과 안전성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제시됐다.

최무열 원장은 “오늘 확인한 현장의 구조적 한계와 임업인들의 고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제안된 의견이 실효성이 있

는 지원책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진행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여 응답하는 소통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숲속 누비는 ‘자율주행 드론’ 시대 연다

조사 시간 10배 단축… 정확도 96%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8일(수), 전남 해남군 내부를 스스로 비행하며 3차원 정밀 정보를 수집하는 ‘라이더(LiDAR) 탑재 자율주행 드론’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된 기술은 숲 속에서 드론이 나무 등 장애물을 인식해 회피하고, 나무 기둥(수간) 및 하층 식생을 정밀하게 스캔하며 비행하는 ‘임내 자율주행(Autonomous Internal Flight)’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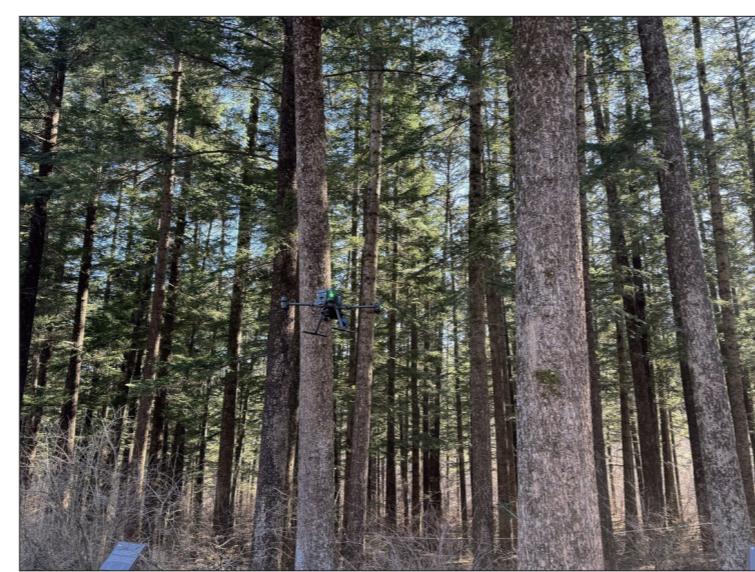
특히 숲 상공과 내부를 오가는 ‘하이브리드(Hybrid)’ 조사 방식을 통해, 나뭇잎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나무의 기습높이 둘레

(흉고직경)까지 정밀하게 구현해냈다. 기존의 인력 조사 방식은 ha당 약 22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자율주행 드론은 단 2.3시간 만에 조사를 마쳐 조사 시간을 약 10배 단축했다.

또한 현장 실측 데이터 대비 96%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며, 무인 조사 기술의 실제 현장 투입 가능성을 입증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시연회에서 입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인력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 지형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산림 자원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



▲자율주행 드론 현장 시연회 개최(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영연구과 박정목 연구사는 “이번 시연회는 드론이 숲 밖에서 안으로 직접 진입하여 산림 조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순간”이라며, “앞으로 드론의 소형화와 경량화 등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남부지방산림청, 경북 구미 산불 선제적·압도적 대응으로 산불초기 진화

진화자원 신속 투입… 산불 발생 2시간 41분 만에 진화

1월 25일 낮 12시 39분,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산5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청 헬기 5대를 포함한 총 16대의 헬기와 진화차량 49대, 진화 인력 369명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압

도적 대응으로 2시간 41분 만인 오후 3시 2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주 불 진화된 상태지만, 현장에 인력을 잔류 배치해 뒷불 감시 체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산불 발생 원인 조사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3시 기준, 전국적으로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견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동시다

발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임하수 청장은 “봄철 이전이라 하더라도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논·밭 두렁 소각이나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산림조합에 영농부산물 파쇄 맡기세요

2월 1일~15일 일제 파쇄 주간 운영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산림조합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파쇄주간에는 전국 142개 산림조합이 동시에 참여해 산림 인접 농경지와 소각 우려 지역의 전정가지,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을 집중 파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는 산불예비진화대와 영림단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소각금지 계도 및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림조합은 산림 정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산림 인접지역에서 산불의 연료가 될 수 있는 영농부산물을 수거하고 산불예방·대응·피해 복구 각 단계에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선제적인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통해 불법 소각을 줄이고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데 최



▲산림조합중앙회 제공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0210@naver.com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야간 투시경(NVG)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가 탑재돼 앞으로는 승무원이 야간 산불 진화 시 화선에 정밀 물통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산림청, 대형헬기 시누크 신규 도입

헬기 도입으로 산불재난 총력대응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산림항공본부에서 국내 최초 민수용 대형헬기 시누크 1대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식을 개최했다.

도입식에서는 시누크 헬기와 중형헬기 KA-32를 활용해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헬기 이륙부터 담수, 현장 접근, 물투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범함으로써 봄철 산불대응 능력을 선보였다.

이번에 도입된 시누크 헬기는 미국 보잉(BOEING)사에서 제작 운용하던 군용헬기를 미국 콜롬비아(COLUMBIA)사에서 산불진화헬기로 재제작한 기종으로, 최대 10,000리터의 진화용수를 탑

재할 수 있으며 최고속도 시속 259km의 기동성을 갖춰 산불발생 시 초기진화와 확산 차단에



▲산림청 제공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지역거버넌스 회의 개최

순천지역 방제전략 점검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호남호국기념관에서 국가선단지로 지정된 전라남도 순천시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순천시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순천시는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위한 방어선인 국가선단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화순군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초기 단계인 인접지역으로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번 ‘순천시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에는 유관기관, 지역 주민, 언론, 관련 업체 및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순천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점검하고 방제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재선충병 방제에 적극 참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 방문에서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일대를 중심으로

비란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경북 구미 산불 선제적·압도적 대응으로 산불초기 진화

진화자원 신속 투입… 산불 발생 2시간 41분 만에 진화

1월 25일 낮 12시 39분,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산5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청 헬기 5대를 포함한 총 16대의 헬기와 진화차량 49대, 진화 인력 369명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압

도적 대응으로 2시간 41분 만인 오후 3시 2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주 불 진화된 상태지만, 현장에 인력을 잔류 배치해 뒷불 감시 체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산불 발생 원인 조사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3시 기준, 전국적으로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견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동시다

발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임하수 청장은 “봄철 이전이라 하더라도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논·밭 두렁 소각이나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순천시는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위한 방어선인 국가선단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화순군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초기 단계인 인접지역으로의 추가

비란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경북 구미 산불 선제적·압도적 대응으로 산불초기 진화

진화자원 신속 투입… 산불 발생 2시간 41분 만에 진화

1월 25일 낮 12시 39분,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산5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청 헬기 5대를 포함한 총 16대의 헬기와 진화차량 49대, 진화 인력 369명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압

도적 대응으로 2시간 41분 만인 오후 3시 2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주 불 진화된 상태지만, 현장에 인력을 잔류 배치해 뒷불 감시 체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산불 발생 원인 조사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3시 기준, 전국적으로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견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동시다

발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임하수 청장은 “봄철 이전이라 하더라도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논·밭 두렁 소각이나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순천시는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위한 방어선인 국가선단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화순군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초기 단계인 인접지역으로의 추가

비란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경북 구미 산불 선제적·압도적 대응으로 산불초기 진화

진화자원 신속 투입… 산불 발생 2시간 41분 만에 진화

1월 25일 낮 12시 39분,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산5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청 헬기 5대를 포함한 총 16대의 헬기와 진화차량 49대, 진화 인력 369명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압

도적 대응으로 2시간 41분 만인 오후 3시 2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주 불 진화된 상태지만, 현장에 인력을 잔류 배치해 뒷불 감시 체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산불 발생 원인 조사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3시 기준, 전국적으로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견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동시다

발 산불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임하수 청장은 “봄철 이전이라 하더라도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논·밭 두렁 소각이나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순천시는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위한 방어선인 국가선단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화순군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초기 단계인 인접지역으로의 추가